

“천년전 지배계층들은 납작 머리였다”

신라시대 금관은 망자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

금관과 편두



황남대총(국보121호)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국립박물관 유물을 관람하고 난 후 전시물 중 가장 인상깊은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하면 대부분 정교한 금세공품을 꼽는다. 삼국시대의 화려한 금관을 보고는 한국인의 재주에 기가 질렸다고까지 말하는 외국인도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 중에는 고려자기를 비롯하여 국보급 유물이 많은데 귀고리와 팔찌 등 금세공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는 반응은 세계 각지의 박물관을 방문해보면 의문점은 쉽게 풀린다. 이집트 등 몇몇 고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신라나 백제, 고구려 시대의 금세공품에 버금가는 유물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의 금세공품과 비교해보더라도 삼국시대의 금세공품이 얼마나 정교하고 우수한 솜씨로 만들어진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엘도라도(황금의 땅 또는 황금 인간)라는 전설을 만들어낼 정도로 황금이 많았다는 잉카 제국이나 마야 문명의 금세공품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금세공에 관한 한 고대 한국인의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금제품은 고조선 말기, 즉 기원전 2세기 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삼국 시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금에 대한 역사도 다시 짚어져야 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다.

북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양시 강동군 순창리 금

비위 5호 무덤에서 25세기경의 금동 귀고리가 발견되었고 평양시 강동군 송석리 문선당 2호, 3호, 8호 무덤에서 발견된 금동 가락지와 귀고리는 기원전 2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과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유역 원주민들은 신석기 시대 말부터 금을 가공하여 장신구를 만들었다. 인도에서는 5천 년 전의 유적에서 금목걸이를 비롯한 금제품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금제품 제조가 이들 국가보다는 다소 늦었는지 모르지만 기원전 25세기에 이미 금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이 얼마나 빠른 것인지 알 수 있다.

장신구의 꽃 금관

삼국시대의 유물에만 국한하더라도 금세공품의 경우 그 수가 놀랄 만큼 많이 남아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장신구류는 관(冠), 관모(冠帽), 과대, 요패,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이 있으며 불상, 압출불(壓出佛), 사리구, 경관 등의 불구류도 발견된다. 생활용구로는 침통이나 자물쇠 등이 있고 장식금구로는 의복이나 목관 장식, 무기류의 장식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놀라운 것이 금관이다. 금관은 금으로 만든 관모를 뜻하는데 대개 금속으로 만들어진 모든 관모를 통칭하기도 한다. 관모는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식을 집행할 때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지만 신라 고분의 출토품이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금관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로 존 카터 코벳은 금관이 샤머니즘의 흔적, 즉 무속 예술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베리아와 신라 문화에는 유사성이 많은데 신라 금관(신라는 금이 많아 보물의 나라라고 일본이 흠모했으며 콜럼버스가 금이 많은 지팡구(일본)를 발견하려고 출발한 지팡구는 한

국의 의미한다는 설도 있음)을 그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다.

코벨이 금관을 무속신앙의 흔적으로 보는 이유는 금관에서 나는 경이로운 소리가 악을 물리치는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관은 작은 움직임에도 떨리며 음을 내는데 그것이 음악적 기능을 지녀야 했던 무속인들의 무악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한편으로 무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의례를 행할 때 왕권을 과시하거나 왕으로서의 영험함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금관을 사용했다는 뜻도 된다. 금관을 쓰고 있는 왕을 보는 백성들은 외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코벨의 가설을 비롯하여 금관에 대한 기존의 학설은 금관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데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출토된 금관 중 천마총 금관이 직경 20센티미터, 금관총 금관이 19센티미터, 서봉총 금관 18.4, 황남대총 금관 17, 금령총 금관 16.4, 호암미술관 소장 금동관 16.1, 복천동 금관 15.9센티미터로 중간 값은 황남대총 금관의 17센티미터로 둘레는 53.4센티미터이다. 이 크기는 12살짜리 남자 어린아이의 머리둘레에 해당한다.

금관이 작은 이유로 우선 왕이 어린 나이에 사망했을 경우를 추측할 수 있는데 5~6세기의 신라왕 가운데 10세 전후의 어린 나이로 사망한 왕은 없다. 그러므로 이들 작은 관은 요절한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신라에서 금관은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의 일족이면 어린아이도 착용했다는 뜻).

금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 머리에 쓰고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한데다가 구조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금관은 생존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많았다.

신라의 지배자는 편두(扁頭)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4세기대의 목곽묘에서 모두 10例의 변형두개골이 보고되었고 KBS-TV가 2001년에 기획한 '몽골리안 루트'에서는 예안리 85호와 99호 고분에서 발견된 전형적인 변형두개골을 소개했다. 이들 두개골은 前頭部의 後方傾斜와 扁平性, 頭丁關節部의 현저한 側方突出에 의한 短頭性, 頭高의 낮음, 下顎枝의 後方傾斜를 갖고 있었다. 이들 두개

골의 머리둘레는 50센티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의 정상적인 머리둘레인 57.5센티미터보다 매우 작다.

이렇게 인공변형된 두개골을 '편두(cranial deformation)'라고 부르며 외압에 의해서 두개골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한다. 편두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위지동이전〉에도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긴 돌로 머리를 눌러두어 평평한 머리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진한(辰韓) 사람들의 머리는 모두 편두이다.’

편두 습속은 진한(辰韓) 사람만이 아니라 변한(弁韓) 사람에게도 해당된다고 추정한다. 편두 풍습에 대해 坪井九馬三은 고대 인도에서 행해진 구습으로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유목민(코카서스 북부, 터키 등)에게 많이 나타나는 풍습으로 인정한다. 고조선 지역에서도 일찍부터 편두 풍속이 있었다. 『滿洲源流考』제2권에는 만주지방에는 옛날부터 편두하는 관습이 있어 어린아이 때부터 기구를 통하여 머리통 모양을 인위적으로 편두형으로 만들었다고 적었다.

머리가 작은 편두인골은 우리 나라에서 출토되는 금관의 크기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주는 증거로도 이용된다. 최치원이 진성여왕 7년(893) 신라의 불교전통을 정리한 봉암사 지증대사 비문에 '편두거매금지존'이라는 글로 신라왕의 두상에 관해 적었다. 이는 신라의 법흥왕이 만년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 거매금, 거서간, 마립간, 이사금은 통칭으로 신라의 지배자를 의미하므로 최치원이 적은 글은 편두란 신라 임금의 존귀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금관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편두라면 즉 신라의 임금을 비롯한 지배자들이 편두였다면 금관이 작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글 | 이종호 과학저술가



사진안은 정상적인 인골사신이며 후면부의 2개가 편두 인골(예안리고분에서 발굴)